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27일(화) 총 4매		
담당 부서	물류정책과	담 당 자	• 물류정책팀장 김민석 ☎440-3871 • 담당자 김민영 ☎440-3872 • 담당자 김미현 ☎440-3075		
	공보관실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유물류망 실증사업 성과 입증
- 배송시간 81% 단축·탄소 배출량 49% 감소·택배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27일 '당일배송 서비스 실증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

인천시가 도시물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공유물류망 기반 당일 배송서비스’가 실증사업을 통해 배송시간 단축·탄소 배출량 감소·택배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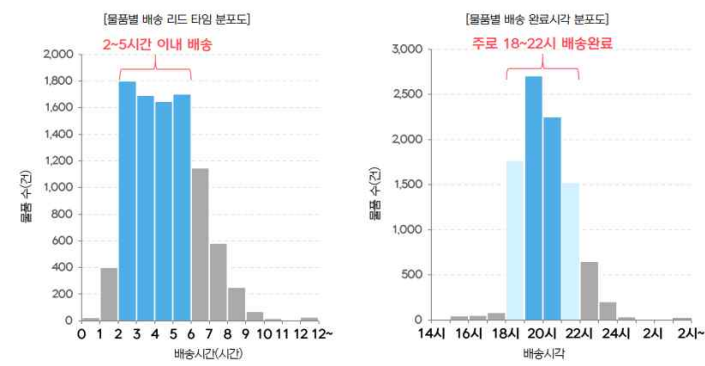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7일 ‘공유물류망을 통한 당일배송 실증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연구구로 계획됐던 서비스 시범 운영 구역을 미추홀구까지 확대해 신도심과 구도심의 공유물류망 운영 효율성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택배사의 물량을 공유물류망으로 배송해 보는 등 공유물류망의 실효성 확인을 위해 다양한 실증을 추진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실증사업을 통해 공유물류망을 통한 당일배송 서비스가 생활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

고 택배노동자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환경비용 및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먼저 V2V 방식의 공유물류망을 이용한 택배서비스의 평균 배송 소요시간은 4.6시간으로 기존 물류창고를 통한 택배서비스의 평균 배송시간(24시간) 대비 19%의 수준으로 대폭 단축됐다.



또, 명확한 분업화와 표준화된 노선 순환 운영을 통해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장시간·고강도의 택배노동자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로 변화된 택배 노동구조는 향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비용 및 교통사고율을 낮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입증했다.

외곽의 허브터미널 집화과정을 배제하고 공유물류망을 통해 화물 총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라스트마일 단계의 차량을 전기화물차로 투입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경유차 활용 택배서비스 대비 49% 줄였다.

이는 연수구와 미추홀구의 1일 평균 물동량(11만7,000Box)의 0.13%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물류망 서비스로 실증했을 때 감소한 수치로, 향후 대상지역의 1일 평균 물동량의 1%를 공유물류망을 통해 배송할 경우 90% 이상의 탄소저감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ase		실증기간 내 (11월)	물동량 1.5배	물동량 2배	대상지 내 0.5%	대상지 내 1%
일 평균 물동량 (박스/일)		137	206	274	585	1,170
박스당 배송거리 (km/box)	기존 택배사	2.14	2.13	2.13	2.13	2.13
	vtov	2.35	1.86	1.54	0.77	0.50*
기존 택배사 대비 vtov CO ₂ 저감율		49.05%	63.63%	69.74%	84.87%	90.18%

또한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에는 택배차량의 이동거리 감소로 교통사고율이 기존택배사의 운영방식 대비 77%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유물류망 당일배송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6% 이상의 응답자가 당일배송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83% 매우 만족)했으며 99% 응답자가 해당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가 경험한 배송 물품 중에는 식품군(75%)이 가장

많았으며, 향후 경험해 보고 싶은 물품 또한 조리, 가공, 기능성 식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해당 서비스를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인 인천시는 식품군에 대한 당일배송 서비스 경험과 잠재 수요를 고려해 관련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공유물류망 당일배송 서비스를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서비스와 연계해 소상공인의 유통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당일배송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급증한 생활물류로 인한 각종 문제 개선, 소상공인 유통경쟁력 확보, 당일배송 생활권 구축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물류체계 구축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공유물류망은 도심 내 유희 부지를 ‘물품의 정류소’로 활용해, 별도의 물류 창고 없이 차량에서 차량으로(V2V) 물품을 옮기는 체계로 물품을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환적·배송하는 것이 장점이다.

시는 공유 거점을 활용한 V2V 방식의 공유물류망을 도입해 기존 택배 방식 대비 배송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당일배송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2022년 3월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연수구와 미추홀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I 실증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V2V 기반¹⁾ 공유물류망 구축을 통한 당일배송 서비스 실증
- (목표) 공유물류망 구축을 통한 생활물류 수요 대응
- (실증구역)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 (총사업비) 2,400백만원(국비 600/ 시비 600/ 참여기업 1,200)
- (사업기간) 2022. 4. ~ 12.
- (사업내용) 공유거점을 활용한 V2V 방식의 공유물류망 도입
 - 배송 시간, 비용을 증가시키는 창고를 배송 전 과정에서 배제
 - 물류창고 없이 차량간 유기적인 운행 및 화물 전달을 통해 배송

□ 그간 추진사항

- '21. 12. ~ '22. 3. :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 및 선정
 - (인천시 선정사업) V2V 기반 공유물류망을 통한 당일배송 서비스 실증
- '22. 5. : 참여기관, 협력업체 간 업무협약 체결
 - * 인천연구원, (주)브이투비, 인하대학교, (주)휴맥스, (주)하이파킹, 패스트박스(주), (주)엔에스쇼핑,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삼영물류(주)
- '22. 8. ~11. : 당일배송 서비스 실증
- '22. 9. ~12. : 리빙랩 시민참여단 구성(16명) 및 운영 (4회)

II 성과보고회 개최

□ 행사개요

- (일시) 2022. 12. 27.(화) 10:00 ~ 11:00
- (장소) 신관 회의실(18층)
- (참석자) 20여명
 - 인천시 : 해양항공국장, 인천연구원 등
 - 중앙 :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국토연구원
 - 협력기관 : 인하대학교, (주)vtov, MOU 체결 화주 4개사* 대표 등
- * 패스트박스(주), (주)엔에스쇼핑,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삼영물류(주)
- (주요내용)
 - 실증사업 성과 발표 및 강평, 기념촬영 등

□ 세부일정

진행시간		주요 일정	비고
10:00-10: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5-10:10	'5	○ 경과보고	물류정책팀장
10:10-10:20	'10	○ 인사말씀	해양항공국장 (주)vtov 대표이사
10:20-10:50	'30	○ 성과보고 및 강평 등	인천연구원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협력기관(업체) 등
10:50-10:55	'5	○ 기념촬영	다함께
10:50-11:00	'10	○ 정리 및 마무리	사회자

1) Vehicle to Vehicle: 물류창고 없이 차량에서 차량으로 상품 환적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체계